

첫 불화초본전 여는 金魚 우일스님

외길 65년... "정성이 곧 수행"

22~29일 조계사 불교회관서 불화입문자 위한 '초본집' 도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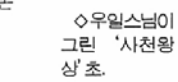
세수 88세, 법랍 69세. 전국적으로 불상·탱화조성, 단청, 개금 등을 한 사람이 2백30여명. 초야에 불어 65년동안 불 보살 조성을 외길수행으로 삼고 정진해 온 금어(金魚) 김우일스님이 생애 최초의 개인전을 갖는다. 22일부터 29일까지 조계사내 불교회관 1층에서 갖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님이 직접 그린 불화초본(草本 불화의 밑그림) 130여점이 선보인다. 스님은 '금어' 호칭을 받고 있는데 금어란 불상을 조성할 뿐 아니라 탱화, 단청 등에 모두 능한 화사를 지칭하는 것. "불사란 잘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 했느냐가 마음이 가장 중요해. 부처님이나 보살님 상들과 부처님이 사시는 집의 단청은 한번 조성하면 세세상생 중생들의 참배를 받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우일스님은 19살때인 지난 29년 공주 감사에서 월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그때부터 불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가사는 특히 이름있는

불화승 배출로 유명한 사찰인데 우일스님은 조선 후기 화사(畫師)의 큰 맥 금호스님→보응스님→일섭스님의 맥을 이었다. 24세때 당시 유명한 금어인 보응스님에게 불화의 기초를 배우다가 스님이 열반하자 보응스님의 제자이며 이미 일가를 이룬 김일섭스님의 맏제자로 들어가 천왕 보살초를 수료해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 29세때 본격적으로 사찰불사에 참여, 65년간 수덕사, 범어사, 내장사 대웅전, 금산사 미륵전, 선암산 대웅전, 관악산 연주암 갑사 등의 단청과 대문사 화엄사 보문사 성주사 광덕사 등 수많은 사찰의 탱화, 개성 안화사 오백나한과 시왕, 금산사 오여래 육공보살 개금불사 등 많은 불사를 수행해 왔다. "나야 뭐, 부처님 그리고 단청하는 것을 평생 수행방편으로 삼은 사람이지." 평소 임버처럼 이같이 말하는 스님은 노구로 눈 귀가 전갈지 못하지만 지금도 붓 잡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스님은 특히 세필에 뛰어나고 인물 표현이 살아

있듯 생생한 것으로 이름나 있다. 스님이 한창 활동했을 때는 '우일스님에게 불사를 맡기 고자 사찰주지들이 우일스님을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까지 올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우일스님의 사제로는 고재섭스님 임석정스님 조정우씨 등 대가들이 있고 제자로는 단청 불화 부문에 조기환씨, 조각에 허길용 김광열씨 등이 맥을 잇고 있는데 이번 전시는 제자들인 조기환 허길용 김광열씨가 스님의 미수를 기념해 열어드리는 전시회이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 맞춰 평생 해 온 초(草)중 가려뽑은 불화초본집(150쪽)도 발간한다.



우일스님



우일스님이 그린 '사천왕상' 초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03>

바다 끝까지 보내는 시선

白浪觀天魚躍躍 흰 물결 하늘 뒤덮자 고기 뛰어 오르고 (백랑번천어약약) 靑山望海鶴雙雙 푸른 산 바다를 누르니 학은 쌍쌍히 날다 (靑山望海鶴雙雙) (靑山望海鶴雙雙) 푸른 산 바다를 누르니 학은 쌍쌍히 날다 憑欄送目滄溟外 난간 기대어 푸른 바다 끝 보내는 시선 (淸澗送目滄溟外) (淸澗送目滄溟外) 푸른 해 반짝반짝 나그네 침을 비추다 (高閣輝輝射客窓) (高閣輝輝射客窓)

위 시는 용암(龍巖 1713~1779)대사의 시이다. 제목을 '청간정(淸澗亭)'이라 하였다. 용암대사의 법명은 체초(體照)요 당호가 용암이다. 호남의 장성 사람으로 원래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태몽으로 허공을 배회하는 구름을 꾸었고, 대사가 태어나는 날, 문 밖에 스님이 와서 우리의 종풍을 일으킬 사람이 당신 집안에 있으니 기억해 두라 했다 한다. 이것이 대사에 대한 미래의 예언이었던 것이다. 대사는 일암(日庵)법사의 법을 이었으니, 법계로써 청허당의 7세손이 되는 셈이다. 대사의 문집은 <용암당유고>로 전해지고 있다. 분량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어서 시 70여수가 전하고 있지만, 유성이 쓴 서문에는 "그의 문집을 보니 시가 맑고 뛰어난(淸澗) 비록 선비의 문장가에서 찾아보더라도 그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대사의 시는 스님으로서의 신분을 느낄만한 교리나 법리를 담은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청간정에서 바라보는 아침 경치를 담담히 읊고 있다. 바닷가의 정자에 올랐다면 우선 물 밑을 내려다 보는 것이 상리다. 하늘까지 닿는 흰 물결,

거기에 하늘이 낮다 하듯이 뛰어오르는 고기의 발랄함, 아침의 생동한 기상을 이리서 어디에서 감상할 것인가. 시선을 다시 위로 돌리면 산은 바다를 억누르고 있다. 푸른 산 바다를 누르다(靑山壓海)의 이 시구도 마치 스님의 기개가 세상을 압도하는 느낌이다. 그러가 하면 아래로 누르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의 날개짓이 위로 또 비상하고 있다. 이것이 시의 묘미이다. 이 시에서 이 두 구의 구성은 빈틈없는 짜임을 보이고 있으니, 첫 구와 둘째 구가 하늘 바다라는 상하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흰 물결 하늘에 닿고 산은 바다를 누르니, 각기 상하의 공간을 잇고 있는 수직선을 그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구성적 안목이다. 이제 시선을 한 곳으로만 멈출 수가 없다. 다시 시선을 놓아 끌가는 곳까지 달려 보자. 어디까지 보낼 것인가, 저 바다 뒤편이다. 여기서는 저 끝으로 보내고 저편에서는 이쪽으로 햇살을 보낸다. 역시 주고 받을 대칭이다. 이것이 자연의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강조하려는 불성일 수도 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백양사 고불미술관 28일부터 일반공개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경내에 상설 미술관 고불미술관(관장 지선스님)을 개관한다. 백양사는 2천여만원 들여 우후루 27평 내부를 보수, 조명시설 등 전시를 위한 완벽한 미술관 시설을 갖추고 28일부터 일반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고불미술관은 개관 기념으로 연말까지 상암사 선암사 실상사 금산사 등 전국 고찰의 범종과 탕, 부도의 불보살 상화와 비천상 등을 탁본한 탁본작품 40여점을 전시하는 '불보살의 미소특별전'을 연다. 이번 백양사 고불미술관 개관은 지난 10월 해인사미술관 개관과 더불어 전통고찰과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진 산사에서 일반 관광객들에게

문화소식

불교미술의 진수를 만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문화포교의 새로운 장르로 여겨지고 있다. 고불미술관은 앞으로 '돈황하고굴 보살상그림전', '고불총림방장 서용스님 회화전', '북한그림전' '수석(水石)전' 등 다양한 테마전을 기획하고 있다.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철보사 주심)이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 서귀포시화성문화원 전시관에서 서예전을 갖는다. 서귀포시 월라사(주지 도종) 중창불사기념 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



김대원씨 개인전 21~26일 서울갤러리

제3회 월전 미술상 수상자인 불화가 김대원씨 <사진>가 21~26일 서울 갤러리에서 산수화 개인전을 갖는다. 전통적인 수묵의 기법으로 우리의 자연과 삶의 터를 자연스럽게 화폭에 담은 김대원씨의 '고개' '양수리 강변' 등 30여점이 소개된다. (02)735-7711

고미술전시관들 "애호가 초대"

다보성 고미술사료전 대 호 소형고도자전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상설 고미술전시관이 잇따라 기획전전을 마련, 고미술 애호가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다보성고미술전시관(대표 김종훈·581-5600)은 11월10일까지 '고미술사료전'을 개최, 통일신라시대의 금동여래입상을

비롯 고려시대의 호지감불, 청동명종 등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 7백여점을 선보인다. 지난 불개인으로서는 처음 금속종중합전을 개최한 대호고미술전시관(관장 주기상·212-8777)은 12월31일까지 '소형고도자(小形古陶磁)특별전'을 마련, 산사(山寺)에서 스님들이 쓰던 공양기, 다기 등 5백여점을 전시·판매한다.

문화재소식

흥덕사지 청동금고 등 충북문화재 158점

청주 흥덕사지 청동금고, 중원미륵사지 금동귀면장식과 건흥5년명령비 등 충북의 문화재들이 해외나들이에 나선다. 일본 아미나기현 고고박물관은 충북과 아미나기현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해 11월24일까지 한일고대 지방문화를 비교하는 '한국 충청북도 고대문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청주박물관이 흥덕사지 청동금고 등 80여점을, 청주고고박물관이 직지 영인본 등 15점을 소개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 광주 공주박물관 등도 소장유물 40여점을 출품, 총 1백58점의 유

일본 나들이

물이 전시되고 있다. 또 아미나기현이 고고미술자료 2백여점을 함께 전시, 관광객들이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교류 양상을 비교감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거론사지·법천사지 내년부터 일제정비 거론사지·법천사지 등 원주지역의 폐사지가 내년부터 2002년까지 일제히 정비된다. 원주시는 중원문화원 정비사업의 하나로 거론사지·법천사지를 조사,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고 훼손

문화재소식

최고금속활자 계미자 일본서 보존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로 추정되는 계미자(契米字)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 태종3년(1403)에 만든 계미자의 존재를 일본 돗파인쇄주식회사의 자료실에서 확인한 부산외대 일본어학과 김문길교수는 인쇄물이 아닌 현존하는 활자로는 세계 최초의 것이며,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활자보다도 47년 앞서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계미자가 원래 10만자라는 점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조선에서 가져왔다는 일본

약(藥)이 되는 신비한 약초 백화사설초 - 암퇴치, 예방, 성인병에 효과 입증 기적의 약용 백화사설초 우리 땅에서 재배 성공

신비의 약초 백화사설초 『암』 치료에 탁월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가 간암·직장암·식도암·방광암·자궁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다. 바 불심집은 우바이가 백화사설초의 효능을 몸소 체험한 후 재배를 확대,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신농산 대표 김나진자 보살은 C형간염·황달·당뇨 등이 겹쳐 사경을 헤매며 각종 양방과 한방을 썼지만 치료에 안돼 소문만 불려 들던 백화사설초를 구입, 달여 복용한 결과 밤이 치료되어 본인도 직접 이 약초를 재배하기에 이르렀으며 보급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불자 운영하는 「영신농산」서 보급, 각종 염증·종기·타박상에도 효과

백화사설초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백운산에서 자생되는 것을 처음 발견 「백운초」이라고도 부른다.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영신농산 식물로 30cm 정도의 키에 연약한 대롱이 밤의 혀바닥(蛇舌)처럼 생긴 잎에 흰꽃이 핀다하여 불어전 이름이다. 백화사설초는 그 줄 전부를 약용으로 하며 암 이외에도 각종 열증이나 종기, 타박상에 특효 약초로 쓰인다. 또한 정열해독제(淸熱解毒劑)로도 이용되며 체내의 응어리를 풀어 독을 해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경남생약연구소의 성원길 소장(약학박사)은 「백화사설초는 옛날부터 전해온 민간약으로 청열·종기·기관지염 등 각종 염증과 항암제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어 현대 천연약물개발로 주목받고 있다」며 「백화사설초의 예기스의 동물실험에 악성종양세포에 강한 억제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1997년 7월 16일 대한불교신문 <한>

● 95년 한국인 암통계 한국인은 위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암에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95년도 한국인 암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95년 새로 발견된 암환자는 6만4천7백61명이며 이중 남자가 55.5%, 3만5천9백45명이었다. -1997년 7월 24일 중앙일보 기사



- 각종 문헌에 나타난 백화사설초의 효능
◎ 항암본초(상인의 편지, 김수철 역주) 위암, 식도암, 직장암, 대장암, 임파육류, 유선암, 자궁경암 기타 암종
◎ 임상 항암중초약(성보사 편) 각종 종양에 광범위하게 사용. 특히 소화기계 및 임피계 종양에 잘 사용됨. 임피계암세포종, 임파육종, 망상세포종, 위암, 직장암, 유암, 맹장암, 간염, 비노기계 갑질종, 기관지염, 편도염, 인두염, 타박상, 외상으로 창절, 용종, 독사교상치료, 급성 백혈병, 급성 과립구성 백혈병, 급성 임파성 백혈병 등
◎ 모약기방(조규형 저) 위암, 직장암, 간암, 자궁경암, 방광암
◎ 한방의학 대사전(진중민 저) 간암, 위암, 식도암, 간염, 위암, 식도염, 편도선염, 직장암, 창절종, 화농성갑질종
※ 싱가포르대학 화학 이광선 박사는 "간암으로 홍콩의 권위있는 어느 병원에서조차 치료약이 없다고하여, 백화사설초를 매일 150g씩 전탕해서 복용하다가 3개월만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독처와 약처』 동화문화사 편, 신재용 생활칼럼서에서)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의약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약보호협회장 이희복사 한영재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 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 약학박사 성원길
영신농산 백화사설초
상담문의 (051) 465-5100, 467-5200
★ 특허출원 제 26218호